



## 무재해 준공을 꿈꾸며, 항상 오늘 같이 안전을.. -풍림산업 장항선 4공구 현장-



▲ 박종우 소장

**태** 풍 소텔로가 남쪽에서 올라온다는 기상예보를 듣고, 오늘 방문하는 풍림산업 장항선 4공구 보령 현장 취재가 비로 어려워지지 않을까 아침부터 조바심이났다.

서둘러 서해안고속도로를 따라 보령으로 가는 길에 날씨는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화창하다 못해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뜨거운 날씨다.

오늘 찾은 풍림산업 장항선 4공구 현장을 찾는 데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보령 C에 나와 보령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대지를 가로질러 철도교각이 즐비한 장엄한 현장이 오늘 찾을 곳을 짐작케 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안전제일주의,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통한 경쟁력 확보, 적극적·자율적 안전활동 실천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고, 체질을 개선하여 더 멀리 더 높이 힘차게 정진하고 있는 풍림산업을 대표하는 장항선 4공구(박종우 소장)를 찾았다.

장항선 4공구 현장은 온양온천에서 장항까지 철도를 복선화하는 현장으로 2001년에 착공하여 2005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총 13km의 선로개량공사를 추진하고있는 장항선 4공구 현장은 장대교 5개소, 터널 3개소 등으로 현재 대천역사와 3km의 장대교 1개에 대해 공사를 진행하고있다.

착공 당시 풍림산업 전체 현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박종우 소장이 무재해 준공을 위해 총지휘하고있다.

소장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배태랑 중에 배태랑인 박종우 소장은 안전제일을 앞세워 무재해 준공을 이룩한다는 각오다. 13년 동안 사고 없이 오늘 장항선 4공구까지 온 박종우 소장은 무재해 소장답게 이곳에 무재해 준공으로 정년을 맞이한다는 계획이다. 박종우 소장이 무재해 소장이 되는데에는 “모든 작업자는 가족이다”라는 특별하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을 살피듯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서 살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특별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 생각할수있는 상황을 진실하게 실천하는것, 이것이 비결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다.

## 재래형 재해는 맞춤 안전설비로 예방

장항선 4공구 현장 중 대천역사는 선하역사로 위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아래에는 대합실인 구조로 기차의 무게와 소음 진동을 고려한 시공을 하였다. 이때 콘크리트 두께가 2m 정도로 콘크리트 타설시 일반 동바리로는 하중을 견디기 힘들어 붕괴 위험이 있어 시공이 가장 힘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하중을 고려하여 시스템 동바리를 특수 제작하였고, 붕괴 위험을 우려해 추가로 보완 동바리를 설치하여 붕괴의 위험을 예방하였다.

또한, 역사는 단부가 많아 추락의 위험이 있다. 그러나 추락방지를 위한 기존의 APT 난간은 규격이 맞지 않아 추락 위험을 완전 제거할 수 없어 이곳 현장에 맞는 안전난간대를 특수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터파기 둘레의 가시설도 자체 개발한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재래형 재해를 근절하고 있다.

## 안전 마인드 고취에 중점 관리

이곳 근로자들은 안전모와 안전벨트 착용은 철저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보호구를 잘 착용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 근로자는 수도권 현장 근로자보다 안전마인드가 많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이곳 현장에서도 착공당시는 안전모 하나 씌우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작업자 스스로가 안전모, 안전벨트를 챙긴다. 처음에 추진한 강력한 3진 아웃제와 칭찬으로 시작한 안전활동이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칭찬보다 좋은 안전활동이 없다고 여기고 자율안전 정착을 위해 작업자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이다.

## 협력업체와 함께하는 안전관리



## 건설안전리포트

장항선 4공구 현장의 협력업체는 현재 6개 업체가 있고, 그중 1명이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 있다. 사고의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곳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차원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것이다. 이는 장항선 4공구 현장의 안전을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추진만으로 무재해 준공을 이룩하지 못한다. 장항선 4공구에 투입된 모든 작업자가 안전을 생활화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밖에 협력업체 반장급 직원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하고 있어 장항선 4공구 현장의 안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이 곳 현장은 협력업체와 함께 무재해 무사고로 이끌기 위해 협력업체 개념이 아닌 한 소속 식구처럼 함께하는 안전을 하고 있다.



이밖에 이 곳에서는 곧 장마철을 대비하여 계획 수립 및 훈련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고, 혹한기를 대비한 작업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휴게소 설치, 응급조치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5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장항선 4공구 현장은 지금도 무재해를 달리고 있지만 준공 그날까지 무재해를 이룩한다면 4배는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지속한다면 무재해 준공을 이룩할 수 있다고 말하는 안전원 안전과장은 항상 오늘 만큼만 안전활동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작업자들에게 당부한다.

끝으로, 서로를 가족처럼 아끼고 살핀다면 무재해 준공을 맞이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무재해 준공과 박종우 소장의 무재해 정년을 맞이 하길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